



기독미디어 아카데미 4기 개강

지난 10월 2일 오후1시 여의도 국민일보 5층 대회의실에서 기독미디어 아카데미 중기과정 4기 개강예배와 특강이 있었다. 이날 개강예배는 1부: 조정민 CGN-TV 대표의 말씀 인도, 2부: 이인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전 과정에 관한 오리엔테이션과 10월 8일~9일에 있을 1박 2일 영상캠프에 관한 안내 등으로 4기 일정을 시작하였다.

2009년 1월 국민일보 신입기자 세계관 연수 프로그램부터 시작된 기독미디어 아카데미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회의 제반문제들을 바라보고 미디어의 세계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칠 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9월 한 달 간 진행된 서류 전형과 3차에 걸친 면접을 통하여 선발된 21명의 수강생 전원은 미디어 사역에 관하여 뜨거운 열정과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디어 영역에서 중사할 젊은이들에게 생생한 현장에서의 실무

기술과 더불어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국민일보, CGN-TV, CTS 등 기독교 언론사의 협조와 지원으로 교육을 받게되는 수강생들은 전 교육과정을 마치면 수료증과 더불어 성적우수자에게는 기독교언론사 취업지원서 추천서를 발급한다. 지난 3기까지의 수료생들은 현재 기독교언론사나 미디어 관련 기관에서 인턴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유학, 대학원 진학, 선교기관을 통한 미디어 사역 봉사 등 다양한 진로를 통하여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부이촌동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강의에 관심있는 회원들은 기독미디어아카데미 홈페이지(cmca.or.kr)에서 커리큘럼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에 신청하면 청강도 가능하다.

기독미디어아카데미 5기 선발은 2011년 4월에 있으며 선발인원은 2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 1 영상촬영 실습중인 수강생
- 2 선후배가 함께하는 보드캠프
- 3 다양한 세계관 강의
- 4 MT를 통한 친교와 팀웍
- 5 영상기획과 사진촬영 실습
- 6 스튜디오 제작실습
- 7 국민일보 필드trip
- 8 영상편집 과제 점검중
- 9 뉴스제작 실기



1



2



3



4



5



6



7



8



9

